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시험·점수 체제 발표

통합사회·과학 시험시간 늘린다

각 25문항·40분으로 확정...배점 3원화
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 폐지 '통합·융합형'
"수험생 부담 가중...탐구 변별력 커질 수도"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 통합사회·과학 배점은 기존 2.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삼원화된다. 입시업계는 사회·과학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수능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지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필수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공통사회·과학은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한다. 기존 20문항, 30분에서 문항 수는 5개, 시간은 10분씩이 늘어난다.

응시자는 반드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두 과목 답안지는 분리해 운영하고 점수도 따로 산출한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2.3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소재와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와 과학 시험 시간 사이에 문제지와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문항 수와 시험 시간, 문항별 배점은 통합사회·과학과 동일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28학년도부터 20문항, 30분으로 줄어든다. 문항별 배점은 2.3점이다. 국어·수학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해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입시업계는 탐구영역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입시업계는 통합사회·과학 시행으로 특정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9개와 과학 8개 등 17개 과목을 고루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커져 학생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출제영역이 현제보다 대단히 확대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매우 커질 듯하다"며 "특히 탐구과목이 수학과 동일하게 배점 체제가 삼원화돼 수학적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범위가 넓다 보니 문제가 지엽적으로, 혹은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와 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나 실제 전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것도 수험생들에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

두 과목을 모두 본다고 해도 의대나 자연계열 학

	현행 (~2027학년도 수능)	개편안 (2028학년도 수능~)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국어	공통(독서, 문학) + 선택(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공통(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과목당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별 배점
수학	공통(수학, 수학II) +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공통(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 영어II)	공통(영어, 영어II)	20문항 30분 →25문항 40분	1.5, 2, 2.5점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공통(통합사회), 공통(통합과학) *사회·과학 응시자는 반드시 사회·과학에 모두 응시 사회·과학 답안지 분리 운영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 부여	30문항 40분 →20문항 30분	2, 3점
직업	1과목: 5과목 중 택1 2과목: 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 1과목	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절대평가 적용 영역

자료: 교육부



외출 삼가하세요 20일 광주-전남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미세먼지 안내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기의 '영광 굴비' 살려라" 굴비과장·젓갈팀장이 된다

군, 해양수산과 부서명 '굴비해양수산과'로 변경

영광군 해양수산과장이 '굴비과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군 해양수산과 명칭이 '굴비해양수산과' (굴비과)로 바뀌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굴비과는 영광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관광상품인 굴비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영광군은 최근 지역 내 줄어든 굴비 판매량·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부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영광 앞바다에서 조차 참조개가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영광 굴비 판매량은 1만 1158t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625t으로 1년만에 49.6% 급락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2050억원에서 1803억원으로 12% 줄어 들었다. 지역 굴비 판매업체도 461곳에서 448곳으로 점차 줄고 있다.

어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다 못한 영광

군은 특산물 '영광 굴비'의 입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서 명칭 변경을 단행했다.

굴비과의 역점 사업을 추진할 산하 팀 명칭은 '굴비전일젓갈팀' (젓갈팀)이다.

젓갈팀은 염전 노동자 쉼터 마련, 염전 장비 지원, 군유염전관리,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현대화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특산물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 '수산정책팀', '수산지원팀', '해양관리팀', '수산시설팀' 등 4개 팀도 굴비과에서 해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진도군, 나주시 등지에서도 지역 특산물 입지 제고를 위해 부서 개편을 시도한 적 있다. 진도군은 '진도개 축산과', 나주시는 '배원에 유통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부서명으로 쓰고 있다.

영광군 굴비전일젓갈팀장은 "연초 사업 발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과와에 '굴비'가 붙은 만큼 올해는 굴비와 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설 연휴 호남선·전라선 열차 운행 확대

KTX 5714석 추가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기간 동안 호남선, 전라선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호남선 KTX는 모든 운행 일정을 주말 일정으로 변경해 운행한다. 평일에 운행하는 KTX-정통(515석) 대신에 좌석 수가 많은 KTX-1(955석)을 운행하며, 이에 따라 총 좌석 5714석이 추가 공급된다.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또한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매일 4회씩, 총 32회를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연휴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열차 정비 등을 위해 추가 운행 기간에서 제외했다.

전라선 KTX 또한 평일 운행 일정을 주말 일정에 준해 변경 편성해 오는 27~30일 4일 동안 1일 4회씩 총 16회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 무궁화호 또한 1일 4회씩 총 40회 추가 운행한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도사고·장애 예방 등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 안내해설사' 교육생 모집

5·18기념재단 23일까지

5·18기념재단은 오는 23일까지 '2025 오월 안내해설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15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5·18민주화운동 역사, 해설사 소양), 심화과정(문화예술, 왜곡대응), 공개교육인 열린과정(헌법 전문수독, 5·18국가보고서) 등으로 나뉜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열린과정의 경우 신청 없이 수강할 수도 있다.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 방법 등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상영관의 1% 이상 마련해야"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장애인 관람석 마련 기준을 기존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에서 '개별 상영관의 1%'로 바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영화관 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A씨가 당시 방문한 상영관의 경우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는 구조 탓에 따로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인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